

“따뜻한 밥 한끼 든든히 먹고 친구들 만나니 좋아요”

14개월만에 운영 재개 광주 북구 '천사무료급식소' 가보니

새벽 6시부터 어르신들 장사진... 추위에도 웃음꽃 급식소, 500여 명에 식사 대접... 김장김치 선물도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밥 한끼 든든히 먹을 수 있고 친구들까지 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 14개월 만에 4일 다시 정식운영을 시작한 광주시 북구 두암동 천사무료급식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료급식을 받으려는 어르신들로 장사진을 쳤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했지만, 어르신 수백여명은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두터운 패딩 점퍼와 모자를 눌러 쓴 채 3-4시간 전부터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밥대에 신문지, 폐지, 박스 등을 깔고 순번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루함보다는 웃음꽃이 피어 올랐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우산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탓에 천사무료급식소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공간이다. 천사무료급식소는 2021년 10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가 광주시 북구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7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정식운영에 앞서 도시락만을 제공했다. 1년여만에 다시 무료급식소에서 밥짓는 냄새가 퍼지자 인근에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날 무료급식소는 350여 명을 예상하고 재료를 준비했지만, 5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몰렸다. 급식소 측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있는 재료를 모두 동원해 급식소를 찾은 500여명 어르신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첫 번째로 천사무료급식소에 입장한 박양림(여·87)씨는 “오늘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6시부터 나와 줄을 서 있었다”며 “오랜만에 따뜻한 국에 밥까지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속이 든든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씨는 이어 “혼자 살면서 매 끼니 챙겨먹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급식소에서 1주일에 몇 차례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어 좋다”며 웃었다. 이날 무료급식소 점심 식사 메뉴는 설렁탕, 도토리묵, 김치, 삶은 달걀, 꿀떡, 굴 등으로 구성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줬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설렁탕에 밥을 말고 소금으로 간을 한 뒤 식사를 했다. 처음 몇 번은 후후 불어먹다가 나중에는 그릇째 들고 국물을 들이켰다. 자원봉사자들은 김치통을 들고 인산인해를 이룬 테이블 사이를 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김치를 주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옆사람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순임(여·82)씨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따뜻한 밥 해줘서 참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한국나눔연맹 관계자는 “어르신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많다”며 “대략 30% 정도는 혼자 식사하시기 외로워서 오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소 측은 정식운영을 기념해 식사를 마친 어르신 모두에게 김장김치 10kg도 제공했다.



4일 광주 지역 어르신들이 북구 두암동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김치 박스가 무거워 혼자서 들고 갈 수 없어 인근 가게에 김치를 맡기기도 했다. 급식소 인근 두암우체국에는 할머니들이 나중에도 찾으러 오겠다고 맡겨놓은 김치 박스와 장바구니가 한동안 쌓이기도 했다. 김치를 받은 김영수(75)씨는 “혼자 살아 김장도 못 담았는데, 김치까지 주니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로 문을 닫기 전부터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다시 문을 열어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글·사진·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사단장 숙소 정리 부서관 동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부들 ‘자괴감’ vs ‘부대자산 관리 군인 임무’

사단장 숙소 정리에 동원된 육군 31사단 부서관이 SNS에 ‘자괴감이 든다’는 글을 게시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혜드립니다’에는 지난 3일 ‘이삿집센터 부서관’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에서 해당 글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글 게시자는 31사단 직할 대대에서 복무 중인 간부들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7일 일과 시간 중에 본부부대 소속이 아닌 직할부대 소속 부서관 5명을 선정해 사단장 공관에서 가구 배치와 청소, 심지어 냉방과 내부 청소까지 지시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게시자는 이어 “이삿집센터 직원들도 아니고 직업군인들이 일과시간에 1980년대도 아닌 2022년에 이런 잡일도 해야 하는 거냐”면서 “공관병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일과시간에 잡일을 간

부들이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31사단 측은 “관사의 관리·정비는 본부대의 임무로 명시돼 있으나 본부대가 같은 날 오전부터 위병소에서 점검을 받는 중이었다. 불가피하게 다른 부대 간부를 추가 지원받아 1시간가량 정비한 것이다”며 “충분한 설명이 없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부당한 임무 부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게시글의 댓글과 각종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군인 본연의 임무에 최대한 부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게시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누리꾼이 있는 반면, “공관에 있었던 집이 개인 집이 아니라면 군대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재산을 관리하는 건 군인 본연의 임무가 많다”며 부대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광주노동청 20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 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지역에서 건설 경기가 위축돼 임금 체불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감독관이 11개 중소건설업체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지도도를 할 방침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5·18민주묘지, 추모객 친화 ‘리데파크 518’로”

민주묘지 발전 방안 용역 보고 ‘산 자·죽은 자 공유하는 공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이하 5·18묘지)가 국립묘지 승격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예고(광주일보 2022년 9월 2일자 7면)한 가운데 이곳을 ‘추모객 친화적 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보훈처 산하 5·18묘지는 지난달 30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민주묘지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5·18묘지를 ‘리데파크 518 (Lidepark518)’로 재조성하는 안이 담겼다. 리데파크 518은 “The living and the dead park through 518”을 줄인 말로,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가 공유하는 공간을 뜻한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를 통해 묘역을 추가 확충하고 방문객 편의·휴게 시설을 늘리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추모·기념·휴양·교육의 목적을 모두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먼저 이용률이 낮고 침수 문제가 불거졌던 2묘역을 1묘역과 통합하고, 1묘역 상단에 계단식 4단 곡장 형태로 추가 묘역을 조성해 400여기를 안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을 마친 2묘역 공간에는 주차장과 납골당 등이 들어선다. 중앙 참배 광장은 일부 대리석을 파내고 3536기 규모로 묘역을 추가 조성해 총 안장 가능 기수를 4718기로 늘리고 녹지도 확보한다. 참배 광장에는 옛 전남도청 분수대를 형상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유영봉안소는 1묘역 곡장 상단에 동굴형 추모 공간으로 신설·이전한다. 기존 유영봉안소 건물은 실감콘텐츠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화 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안도 나왔다. 민주묘지 남서쪽 임야 4만1737㎡를 매입하고 캠프장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장’을 조성해 교육·문화시설이자 휴게·휴양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문에서 민주묘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직선으로 개편해 정문에서 민주묘지를 곧장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안도 내놨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정 분야에서만 245억여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범태 5·18묘지 관리소장은 “예산 등 검토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말께부터 리모델링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18묘지가 추모 공간을 넘어 광주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